

# 결사정신 살아있는 봉암사 백두대간 보전해법 제시



(106) 희양산 봉암사

백두대간은 우리 산천의 형태를 보는 민족의 고유한 지리인식체계이다. 일찍이 도선 국사는 한반도를 '백두산에서 일어나 지리산에 이르렀다'고 했으며, 조선 초 권근은 백두대간 산줄기를 그림으로 선연하게 드러냈다. 19세기 초에는 백두대간과 13정맥을 대표화한 <산경표>가 나왔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백두대간'은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나고 '산맥'이 통념화 됐다. 10여년 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개발지상주의 정책에 희생된 백두대간을 살리자는 운동이 전개되어 2003년 '백두대간보호법'이 만들어졌다.

해발 998m의 희양산(曦陽山)은 백두대간 그 유장한 산줄기의 단전에 위치하고 있다. 봉암사가 희양산에 들어선 것은 신라말 구산선종 희양산파의 개산조인 지증 대사에 의해서다.

현재에 들어와서는 청담, 자운, 성철 등 당대의 남자들이 '부처님 밭대로 살아보자'며 선종을 진작시켰고, 근래에는 조계종 특별수도원으로 지정돼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봉암사 사하촌은 희양산 이름을 따서 양산마을이라 하고, 마을 앞을 흐르는 물줄기를 양산천이라 한다. 관리소를 지나면 봉암사 경내까지는 1km 남짓한 흙길이다. 갈림길에서 곧장 가면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가고, 오른쪽 다리를 건너면 찾길의 경내로 이어진다. 불사를 위해 임시로 낸 찾길이 이전 주춧돌로 파버렸다. 옛 길로 자동차를 다니게 했으면 숲도 물도 다 잃을 뻔했다.

양산천 위쪽에는 1급수 어종인 갈겨니와 버들치가 우점하고, 아래쪽으로는 돌고기, 파래미, 꺾지, 미유기, 종개 등이 서식하고 있다. 사하촌 아래 천변에는 갯벌들과 산쪼물 등이 산재해 있다.

양산천 상류인 봉암용곡에는 곳곳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 관리소 거사님들의 이야기를 빌리면 밤중이면 수달이 물속에서 침잠거린다고 했다. 가끔 어린 수달이 강아지처럼 스님 뒤를 따르기도 하고, 어미 잃은 새끼 수달이 경내까지 들어와 보호된 적도 있다.

일주문을 지나 침류교(沈流橋)를 건너면 봉암사 큰 절의 영역이다. 기암 뒤로 희양산이 눈앞에 우뚝하다. 희양산은 관상절리에 의해 형성된 바리돌 형태인데, 지형학에서는 보른하르트(Bornhardt)라고 한다. 봉암사 기암은 3단의 석단으로 구획해 있지만, 근래 들어 잦은 불사로 조각들이 무질서해 보인다. 그 래도 다행인 것은 시멘트 공간보다 흙이나 초지 공간이 월등히 넓은 점이다.

대웅보전 뒤에 병풍처럼 둘러쳐진 장승숲은 봉암사의 상징이다. 그러나 양양 낙산사 화제가 보여주듯이 소나무가 오히려 불초에게 역할을 한다고 하여 학계 일부에서는 사찰 주변 소나무를 없애자고 하지만, 봉암사는 대웅보전과 숲속 사이에 넓은 내화(耐火) 공간을 두어서 그런 기우를 맑고하게 씻어준다.



오봉정으로 가는 길.



봉암사 내회수루대.



희양산 전경.



단풍취.

## 겨울이면 스님들이 산새모이 주는 생명공동체 이뤄 원오탑비 주변 빛 잘들어 태양광발전기 세울 계획

대웅전 뒤 장승 숲에는 까막딱따구리가 서식하고 있다. 원오대 딱따구리가 파놓은 둥지에는 새끼를 친다. 이곳의 원앙은 한 구멍에 여러 마리가 집단 산란하는 에그덤핑(Egg Dumping) 생태를 보여준다. 다류멘터리로도 방송된 바, 초 3마리의 원앙이 30개 이상의 알을 한 구멍에 낳아서 새끼를 낳는 것이다. 희양산과 봉암사 일대에 서식하는 조류로는 박새류와 딱따구리류 등의 텃새들이 주류를 이룬다. 산이 깊어서인지, 봉암사 주변에서는 다른 사찰에서 가장 흔히 나타나는 직박구리를 확인하지 못했다. 희양산 산새들은 봉암사 스님들과 생명공동체를 이룬다. 겨울이면 스님들은 산새모이주기에 나선다.

대웅보전 앞마당 좌우에 2기의 정묘대가 놓여 있다. 야간 행사 때 관솔불을 올려놓고 불을 피우던 등명구의 하나로, 노주석이라고도 한다. 네모난 노주석 위에 부처손이 자라고 있다.

각 석단 아래는 초목본을 심은 화단에 조성해 있다. 외곽으로는 느티나무, 전나무, 고로쇠나무, 은행나무, 검쟁나무 등이 큰 키를 자랑하고 있다.

침류교 앞에 두릅나무 한 그루가 자생해 꽃을 피우고 있다. 새까무름은 향긋한 봄나물로 유명하다. 가지 끝에서 나오는 꽃차례는 우산모양으로 핀다. 질 뒤로 근래 지은 동암이 있고, 산 중에 정진 대사 원오탑이 있다. 원오탑비는 산자락 아래에 있다. 탑비 주변은 초지인데, 손질을 잘해서 잔디같은 느낌을 준다. 봉암사에서 가장 넓고 햇빛이 양명한 지역이라 절에서 태양광발전기를 세울 계획이다.

봉암사 앞산은 마사토가 나타난다. 소나무숲이 우거진 등산 주변에 피리진달래가 무리지어 나타난다. 희양산 일대에서 관찰되는 피리진달래는 동북아시아에만 나는 한국고유종이다. '겨우살이참꽃나무'라고도 하는 데 진달래보다 키가 약간 작은 편이며, 나무껍질은 검은색빛이다. 늦봄과 초여름 사이에 꽃이 핀다.

마에불이 있는 백운대 일대는 문경팔경 가운데 첫 손에 꼽히는 절경이다. 화강암은 마그마가 솟아올라 굳어진 화성암이지만, 지상으로 올라와 퇴적되는 과정에서 켜(節理)를 이루기도 한다. 백운대 앞 너럭바위를 두드러진 목탁소리가 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백운대 옆으로 오봉정까지 고즈넉한 숲길이 나왔다. 오봉정 숲길은 봉암용곡과 함께 하기 때문에 경사가 가파르지 않아서 스님들의 고즈넉한 포행길이 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여러 종류의 포유동물들이 목을 적러와 왔다가 너럭바위에 앉아 놀다가기도 한다.

일명 '살행이'라고도 하는 샅도 이따금 이곳을 찾아와 목을 축이거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 배설물을 싸놓기도 한다. 마침 봉암용곡 너럭바위 위에 며칠 된 샅의 배설물이 관찰됐다. 동물의 털과 뼈가 보인다. 몸은 고양이보다 크고, 불분명한 반점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오봉정 가는 숲길에 잣나무 조림지가 넓게 나타난다. 예전에 논밭이던 곳을 묵혀서 잣나무를 심은 것이다. 절에서 숲을 얻기 위해 숲 나무를 심은 곳도 있다.

숲길에서 어린 쇠살무사 한 마리를 만났다. 쇠살무사는 덩치는 좀 작은 편이지만, 까치살무사와 함께 혈액독을 가진 것이다. 대개의 뱀들이 그렇듯이 쇠살무사도 주위의 환경에 따라 색깔과 무늬의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자주 헷갈린다.

오봉정마을은 봉암용곡 끝간 곳에 있는 분지마을이다. 주위의 다섯 봉우리가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고 해 '그런 지명이 붙었다. 한국전쟁 때 월남한 이들이

1970년대까지 20여호를 이루며 살았다고 한다. 사람들이 떠난 집터에 감나무만 해마다 흉시를 만들어낸다. 목발이 된 집터에는 파리가 붉게 익어가고 있다. 파리는 여름에 흰꽃이 피었다가 지면, 그 자리에 파리 열매가 나서 빨갭게 익는다.

오봉정마을을 지나 은티고개를 넘으면 충북 괴산 땅이다. 봉암사가 산문을 폐쇄하고 자연을 지키는 동안 괴산 쪽에서는 군경이 나서서 백두대간 등산로를 조성하며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그 바람에 백두대간 생태계가 많이 흔들린 상태이다.

봉암사 산내에는 백련암, 백운암, 환적대, 월봉도굴 등이 있다. 생태탐방이 목적이려면 서서면에 자리한 월봉도굴부터 찾아나서는 것이 좋다. 오봉정으로 가는 백운대 숲길 초입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간다.

희양산은 소나무가 좋기로 전문가들 사이에 정평이 나 있다. 유전자를 보전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이다. 희양산 소나무는 등선이 가까울수록 단순림 형태를 보인다. 소나무재선충은 들어오지 않았으나, 솔잎혹파리 피해가 있어서 올해 방제작업을 했다고 한다.

활엽수는 거의가 수령 30년 안팎의 약체들로 소나무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노송의 후계목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봐서 20-30년 후엔 참나무 전성시대대로 바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한사람이 겨우 비껴가는 오솔길에도 햇빛이 들어갈 틈이 피었다. 9월 중순 봉암사 주변에서 관찰되는 가을꽃으로는 바다나물, 쥐손이풀, 산질신나물, 등골나물, 단풍취, 들봉선, 똑갈, 참취, 구절초, 미역취, 개쑥부쟁이, 나도송이풀, 삼주 등이 관찰됐다.

토굴 가는 길에 몇 군데 습지가 있어서 고비와 게발나물 등이 관찰됐고, 멧돼지들이 들어와 흙탕물 목욕을 하고 간 흔적도 관찰됐다.

월봉도굴은 집채보다 큰 바위를 지붕으로 삼아 지은, 글자 그대로 흙으로 지은 토굴이다. 침꽃잎이 흐드러지게 핀 뒷밭엔 재를 매질(糞質)로 하는 작은 해우소가 있었다. 퐁을 재로 덮어서 뽕송뽕송하게 만든 다음 그것으로 뒷밭 농사를 짓는 모양이었다.

백운암은 태양열발전기를 설치해 불도 켜고 방을 데우기도 한다. 참나무로 표고버섯을 길러먹기도 한다. 조충목과 알뜰한 남자의 삶이 그대로 보여준다.

백련암은 노스님 거주처이다. 노스님이 마당 앞 화단에 피리진달래를 심어 마치 조경수처럼 키우고 있다. 꽃이 지고 난 우단동자도 마당 한켠에 자리한다.

봉암사 주변에서 본 곤충으로는 긴꼬리제비나비, 호랑나비, 은줄표범나비, 나비, 먹그늘나비, 깃동잠자리, 고추잠자리, 팔중이, 날베짱이, 뱀허물잠살벌 등이다. 한적대 주변에서는 투리알딱새들이 관찰됐다.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봉암사와 희양산의 자연생태는 우리가 백두대간을 어떻게 보전해야 하는지, 그 명쾌한 해답을 보여주고 있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은줄표범나비.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무	서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설	광주시	정효승	1975년생	170	대	졸	회사원	대전	조성준	1975년생	170	전	대	졸	회사원	서울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영업	울주	이광표	1968년생	168	고	졸	사업	서울	유준호	1971년생	176	대	졸	회사원	대전	원병대	1971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노해운	1972년생	173	고	졸	C E O	대전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설	경기도	왕현민	1973년생	179	대	졸	대교	충청	고병진	1975년생	163	대	졸	회사원	서울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사원	대전	박영규	1966년생	182	고	졸	사업	전주시	박대현	1977년생	168	고	졸	회사원	충청	김지경	1970년생	168	고	졸	회사원	대구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사원	대구	문운중	1970년생	163	고	졸	사업	광주시	박범진	1975년생	182	고	졸	공무원	충청	김정준	1965년생	165	대	졸	회사원	서울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직	대구	김길성	1975년생	175	전	대	졸	공무	대전	민건홍	1973년생	170	전	대	졸	건설	충청						
임태빈	1981년생	180	대	졸	공무원	구서	민의식	1969년생	172	고	졸	사업	대전	한상규	1973년생	171	대	졸	대교	충청								
김기업	1969년생	180	전	대	졸	자영업	최정우	1978년생	172	대	졸	건설	서울	양명진	1955년생	170	고	졸	회사원	충청								
홍봉표	1967년생	180	전	대	졸	경기교양	노금광	1972년생	168	고	졸	건설	충청	이승철	1967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최명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시흥	정연중	1959년생	165	고	졸	건설	충청	고종욱	1970년생	167	대	졸	대교	충청								
오상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부천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안태영	1975년생	170	대	졸	대교	충청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사원	부여	박현준	1964년생	163	고	졸	회사원	경기도	박진봉	1969년생	162	대	졸	대교	충청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사원	전주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사원	경기도	배중우	1971년생	170	전	대	졸	대교	충청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사원	충북영동	연길호	1973년생	175	대	졸	회사원	경기도	김상기	1975년생	170	고	졸	회사원	충청								
이형준	1973년생	176	전	대	졸	회사원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건설	대구	이종호	1976년생	163	고	졸	회사원	충청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사원	대전	박종우	1971년생	170	대	졸	건설	충청	오진철	1974년생	170	대	졸	한약	충청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사원	경기용인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건설	충청	이상경	1974년생	173	대	졸	회사원	충청								
정화섭	1960년생	175	대	졸	공무원	경기이천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건설	경기도	최영철	1966년생	160	전	대	졸	회사원	충청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사원	경북예천	김진록	1969년생	170	고	졸	회사원	경기도	정선모	1964년생	158	대	졸	대교	충청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회사원	인천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유창식	1974년생	165	대	졸	대교	충청								
정지영	1974년생	174	고	졸	회사원	수원	서정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사원	경기도	전보우	1971년생	173	대	졸	대교	충청								
임인갑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대구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영업	경주시	차준학	1972년생	171	대	졸	대교	충청								
이현철	1972년생	175	방	통	대	졸	박찬수	1975년생	160	전	대	졸	공사	강원도	이공희	1972년생	165	고	졸	회사원	충청							
김중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사원	서울	모용우	1973년생	177	대	졸	교육	경기도	안민수	1974년생	175	대	졸	회사원	충청								
이영희	1965년생	165	대	졸	회사원	강원태백	박대식	1974년생	175	대	졸	회사원	충청	고석범	1974년생	162	대	졸	회사원	충청								
박중우	1972년생	175	고	졸	회사원	경기안양	최병익	1974년생	176	고	졸	회사원	경기도	오귀석	1958년생	170	고	졸	회사원	충청								
최용상	1970년생	170	방	통	대	졸	김진혁	1964년생	160	고	졸	회사원	경기도	이진용	1955년생	175	고	졸	회사원	충청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사원	서울	정지민	1970년생	162	고	졸	회사원	대전	안영규	1977년생	168	대	졸	회사원	충청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정일호	1967년생	165	고	졸	회사원	대전	여인석	1971년생	183	대	졸	회사원	충청								
육근성	1970년생	185	전	대	졸	회사원	박선준	1974년생	157	대	졸	회사원	충청	여인재	1973년생	176	대	졸	회사원	충청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대	졸	경기수원	진인덕	1965년생	175	대	졸	농업	충청	박홍철	1970년생	170	고	졸	회사원	충청								
배영순	1956년생	150	대	중	퇴	사업	연태현	1973년생	182	고	졸	회사원	충청	임재환	1970년생	173	고	졸	회사원	충청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부천	전홍배	1979년생	170	대	졸	사업	충청	최우준	1971년생	167	고	졸	회사원	충청								